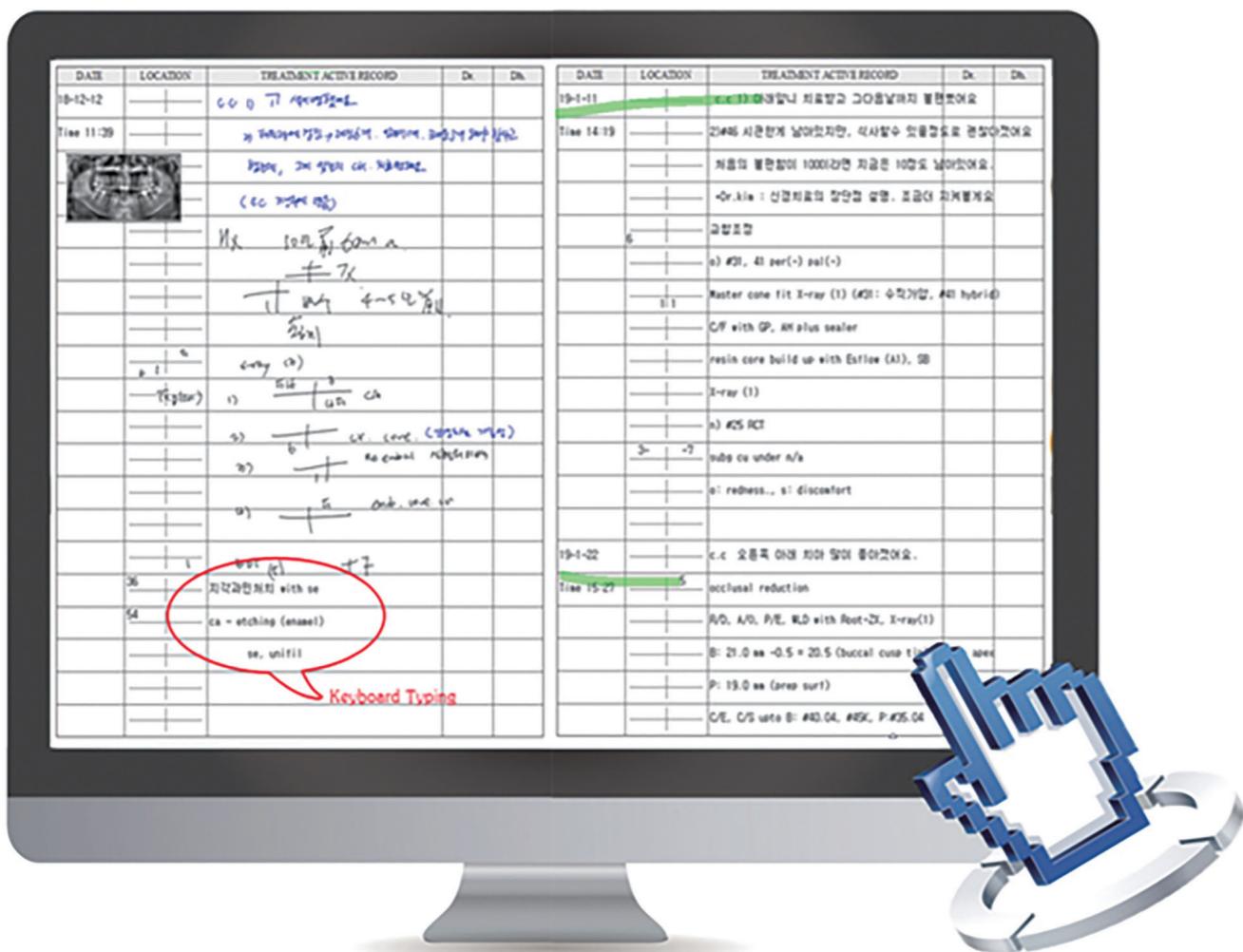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keyboard : The keyboard is mightier than the pen



“도대체 차트는 어디 간 거지?”

“차트장 없어도, 차트를 못 찾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TEL. (02)3397-3580 FAX. (02)3397-0460
www.andwin.co.kr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1

제40권 제1호 통권 45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1

제40권 제1호 통권 45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그림 설명>

이병태(李丙台, 1942-2016)

이병태 선생께서는 1967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치과 보철학을 전공한 후 1973년 서울에 이병태 치과를 개원하셨다. 선생님은 방송인, 문학인, 교육자, 남북교류 등 흥익인간의 삶을 다방면으로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치의신보의 전신이자 치과계 최초의 정보지 '치과월보'의 편집국장을 역임, 치과계 공론의장을 열었다. 특히 약 40여 년의 세월을 바쳐 완성한 이치의학사전은 치의학을 비롯해 의학, 한의학, 생물, 화학과 관계된 용어를 영어, 한국어, 한자로 표기, 총 2180페이지 16만여 단어가 수록된 책이다. 대한치과의사학회에 오랫동안 몸 담으며 치과의사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진력하셨다.

저서

치과보철기공학(1976), 치과보철용어해설집(1977), 깍두기로 통하는 나(1978), 치과의학사전(1982), 치의학 역사산책(2001), 이병태의 한라산 이야기(2012), 이치의학 사전(2014), 나는 사람이 좋다(2016)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한 아려운 상황속에서도 대한치과의사학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제 임기도 유종의 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열심히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주신 회원 및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에 창립 이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치의학의 역사를 조명하여 인간적인 치의학과 의료 행위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고문님, 회장님, 임원님, 관련 기관,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택입니다. 이에 저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는 치의학에 관한 역사의식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도서들의 출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와 집담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치의학의 역사를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대한치과의사학회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치과 개원의 이야기, 치과 세라믹의 역사를 알아보았고 유럽 치과박물관의 현황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학회는 치의학 역사의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김희진

목 차

한국 최초의 개업의와 치의학

‘최초의 근대 개업의 안상호의 생애와 그 아들의 이야기’

안 진 수

Ahn, Jin-Soo

안 병 근

Ahn, Byoung-Keun

1. 안상호의 생애

2. 한국 최초의 의사?

3. 고종 독살설

4. 안상호의 아들

한국 최초의 개업의와 치의학 ‘최초의 근대 개업의 안상호의 생애와 그 아들의 이야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 교수

안 진 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명예교수

안 병 근

1. 안상호의 생애

안상호의 본관은 순흥, 1872년 11월 5일 부친 안건영과 모친 전주 이씨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친 안건영은 장승업과 쌍벽을 이룬 조선말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안상호가 태어나던 1872년 안건영은 화원 중 31세의 가장 어린 나이로 고종 초상화인 어진을 그리는 일에 참여하여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윗대 고조부를 비롯, 증조부, 조부 등은 과거시험 중 잡과의 의관 시험에 합격한 의원들이었다. 그래서 안상호가 의사가 된 것은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것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그의 집안에는 불행이 줄을 이었다. 9남매 중 안상호 외 8명이 다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1876년 안상호가 겨우 4살 때 아버지도 갑작스레 사망하고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고아가 된 조카를 원주 군수였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갔으나 2년 후에 그마저 병으로 돌아갔다. 집안 남자들이 다 돌아가자 안상호는 하인 역할을 하며 새벽에는 나무를 하고 아침밥을 얻어먹었다. 이에 그는 작은아버지 집을 떠날 생각을 한다.



안건영 <마구간>

18세 되던 해 작은어머니는 집안의 노동력인 안상호가 떠날까봐 억지로 결혼시켰는데 혼례를 올린 지 이틀째 되는 날 안상호는 말 없이 집을 나와 서울 마포의 부자 왕고모댁에 몸을 의탁하여 일을 도우며 한문공부도 하고 신학문도 접하게 되었다.

23살에 안상호는 새로 설립된 관립 일어학교에 입학하여 밤에는 일하며 1898년 제1회 졸업생이 되었으며 모교에 남아 일어 교관이 되었다. 그러나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해 일본어를 바탕으로 다른 학문을 수련할 생각을 하였으며 가족들이 다 병으로 죽었던 것을 생각하며 의사가 될 결심을 하였다. 이를 위해 노력한 안상호는 대 한제국 관비 유학생으로 도쿄의 자혜병원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관비 유학생이었지만 가난했던 안상호는 해부실습실 준비와 청소를 하며 공부를 했고 항상 성적도 2~3등을 유지하여 졸업할 때에는 학생 대표로 답사를 읽기도 하여 성공한 유학생의 모델이 되었다.

1906년 대한제국 황실의 의친왕 이강이 두 달간 일본에 머물렀는데 이 때 병이 걸리게 되었고 한국인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상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안상호의 의술과 인품을 깊이 신뢰한 의친왕은 줄곧 귀국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안상호는 의친왕 저택에서 사무를 보던 가와구치 이코라는 여성을 소개받아 35세의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다. 1906년 일본 의사시험에 합격한 안상호는 결국 국민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의친왕의 부탁에 1907년 귀국을 한다. 귀국 후 황실 의사로 일하면서 의학교 교관으로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황실 의료를 책임지는 전의(典醫)로 일해달라는 권유에 평소 격식을 짖어하고 실질적인 안상호는 그 대신 1주일에 1회 입시하는 촉탁의로 일하기로 했으며 종로 3가에 ‘안상호진료소’를 차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술 개인병원이었는데 얼마가지 않아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종로 길거리에 줄을 설 정도로 환자가 밀려들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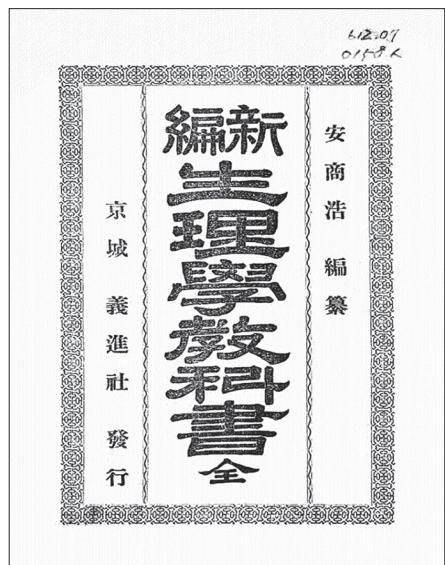
한국인 의사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일본인 의사들이 조직한 경성 의사사회에 대항하여 1908년 의사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안상호는 부회장을 맡았다. 이렇게 활동을 하던 가운데 안상호는 일본인 아내 사이에 4남 3녀를 두게 된다.

성공한 의사로서 황실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었고 사회 유지인사로서 대정친목회에 가입하는 등 일본 식민지 배층과도 가깝게 지내는 처지가 되어 있다 보니 한국인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이후 광무황제 독살설에 연루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광무황제의 죽음 8년 후 1927년 12월 31일 안상호는 병석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숨이 몇자 곧 제야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의친왕 이강



저서 <생리학교과서>

2. 한국 최초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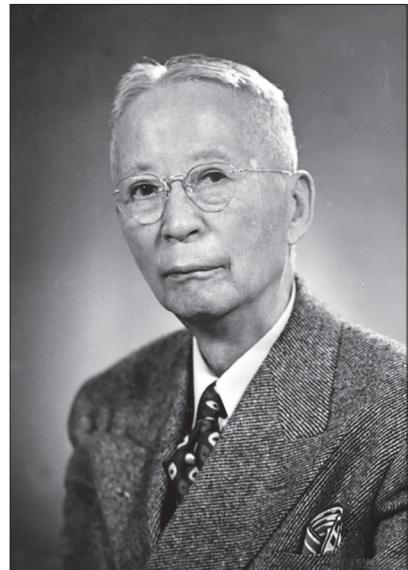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은 서재필, 김익남, 김점동(박에스더) 등이다.

서재필은 1892년 미국서 의대를 졸업했는데 실제로 국적은 미국이고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김익남은 안상호의 관립일어학교 및 도쿄 자혜의원의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1899년 졸업을 하였으나 일본에서 개업할 생각이 없어 시험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의술개업인허장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1900년 8월 귀국하여 의학교 교관 및 군의로 활동하게 된다.

선교사의 후원을 받은 김점동 역시 1900년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여 같은 해 귀국을 하여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제시대인만큼 일본에서 개원할 수 있는 시험에 최초로 합격한 한국인은 안상호가 되므로 안상호는 최초의 개업의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



서재필

3. 고종 독살설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 덕수궁에서 사망한 광무황제 고종은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가 사인이라는 자연사설이 있는 반면, 아침에 식혜 혹은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 있던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다.

독살설의 배후로는 이완용, 한상학 등이 거론되는데 안상호 역시 당시 전의 내지는 어의로서 독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안상호의 행적을 보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의친왕과 매우 친하였고 일본인 단체에 대항한 한성의사회 회장을 맡는 등 정황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실제로 전의나 어의가 아닌, 촉탁의사로서 고종이 쓰러진 당시에도 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전해진다.



고종의 장례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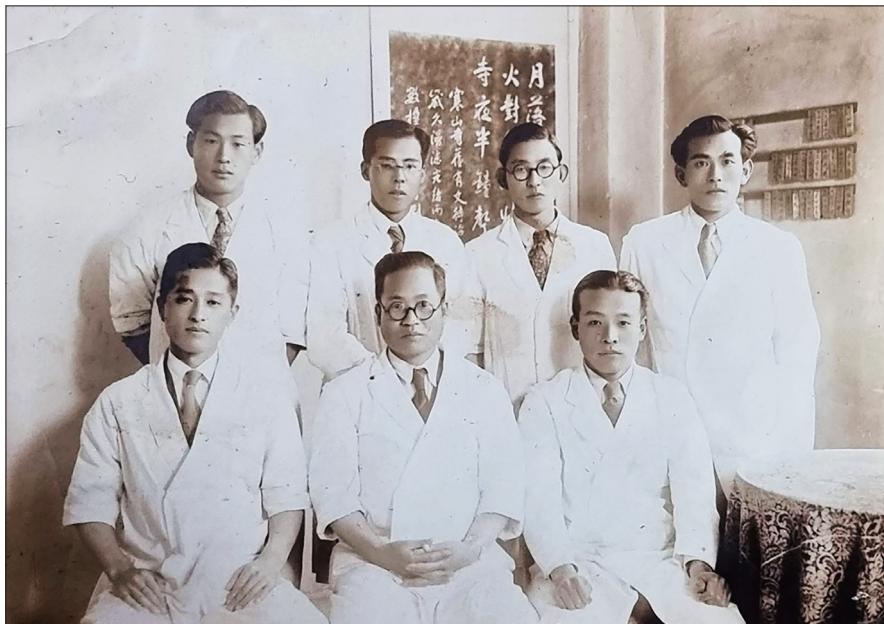
순종의 장례행렬

4. 안상호의 아들

안상호의 4남 중 장남은 정호(正浩; 1912~1965), 차남은 부호(富浩; 1922~1979)이다. 흥미롭게도 안상호를 이어 의사가 된 아들은 차남이었으며 그는 경성의전을 졸업하여 병리학을 전공하여 전남의대, 가톨릭의대 교수를 지내었다. 그렇다면 장남은 무엇을 하였는가?

장남 안정호는 경성치전을 졸업하여 치과의사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경성치전에서 보철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해방 전까지 경성치전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로 있다가 해방과 함께 안양으로 내려가 안정호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썼다고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여 의사가 된 안상호의 장남이 치과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시 치의학이라는 신학문의 가능성과 내다본 안상호의 혜안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저자들의 개인적 생각이다.



경성치전 보철과의국원 (아랫줄 맨 우측이 안정호)

참고문헌

1. 이정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권 2007.12; pp.83-119 “최초의 근대 開業醫 安商浩의 생애와 활동”
2. 가와구치(川口) 이소 여사의 기록 “安商浩씨의 生涯”

〈교신저자〉

- 안진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
- Tel : 02-740-8691, E-mail : ahnjin@snu.ac.kr

치과세라믹의 역사

- 포세린이 치과에 처음 사용되기까지

김 성 훈
Kim, Sung-Hun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치과세라믹의 역사 - 포세린이 치과에 처음 사용되기까지

김성훈 치과의원
김 성 훈

I. 서론

인구의 고령화로 치아의 상실과 그에 따른 보철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의 증가로 말미암아 보철 수복 재료도 비심미적인 금속 재료보다는 심미적인 세라믹 재료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세라믹은 일반 세라믹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과세라믹”이라고 한다. 치과세라믹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포세린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는 포세린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포세린과도 차이가 나며 치과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치과포세린”이라고 불린다. 치과포세린은 포세린 자켓 크라운, 메탈-세라믹 보철물의 비니어 재료, 인레이, 라미네이트 등에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치과 보철 수복 재료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포세린이 치과에 처음으로 사용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사용 가능한 도기를 만드는 성과는 상당한 위업이었으며 초기 도공들에게는 많은 시련과 격변이 수반되었다. 도기의 주된 원료는 점토이지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초기 도공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조작하고 굽는 데 있어 최상의 일관성 있는 형태를 제공하는 점토를 구하는 것이었다. 점토를 단순히 물과 섞으면 일반적으로 다루기에 너무 끈적거린다. 이러한 문제점은 모래와 미세하게 분쇄한 조개 껌질을 추가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점토는 마르고 굳으면서 수축한다. 이 수축의 양이나 수축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도기가 소성되기 전에 크레이 발생한다. 거친 입자의 필러를 추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문제가 실제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도기를 소성하는 동안이었다. 가열 중에 형성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 또는 기포와 같은 혼합물에 존재하는 가스는 점토에 공극을 생성하고 소성 중에 점토가 부서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초기 도공들은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성형하기 전에 점토를 두들겨서 이 문제를 극복하였는데, 이 과정이 바로 웨징이다. 또 다른 발전은 소성 과정 중에 수증기와 가스가 점토에서 터져 나와 도기에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확산되어 나올 수 있도록 온도를 매우 서서히 높이는 것이었다. 세라믹 기술 개발의 이 단계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는 도기가 소성되는 온도였다. 물 결합제에 의해 느슨하게 결합된 개별 입자 덩어리에서 응집력 있는 고체 형태로 점토가 변환되는

것은 소성으로 알려진 공정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입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은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융합된다.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크게 가속화되는 확산 과정에 달려있다. 높고 균일한 온도는 전통적인 불로는 얻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가마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가마 중 가장 초기의 것은 상기류식 가마(up-draught kiln)로, 불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고 상승하는 뜨거운 가스에 도기를 넣는 방식으로서 더 높은 온도와 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 가마는 섭씨 9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이 온도에서 구운 그릇을 토기(earthenware)라고 한다. 이것은 기원전 약 2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 그러나, 이것은 소성 과정에서 점토 입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만 융합하기 때문에 내부에 구멍이 많았다.² 이것은 단단한 음식을 담는 데는 적합했지만 어떤 액체도 담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는 유리 물질의 얇은 층, 즉 유약을 그 표면에 융합함으로써 결국 해결하였다. 이 기술은 튀르키예 등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5500년 전에 사용되었다. 이 후 가마 온도가 더 높게 되도록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더 많은 점토를 부분적으로 녹일 수 있었다. 액상은 변함없이 유리로 응고되어 일반적으로 석기(stoneware)라고 알려진 불침투성 도기가 된다.^{1,2} 이것은 토기보다 강할 뿐 아니라 물도 세지 않는다.^{1,2} 초창기 토기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액체가 아닌 것을 담기에 적합했으나, 석기는 일반적으로 표면을 밀봉하는 유리를 형성할 만큼 높은 온도에서 소성되기 때문에 액체를 담기에 적합했다.² 이런 석기는 유럽에 15세기와 16세기에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원전 100년경에 이미 석기가 생산되었고, 10세기에는 중국의 세라믹 기술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하였다.^{1,2} 극동과의 무역이 성장하면서 이 무한히 우수한 재료가 17세기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그 전까지 유럽에는 식기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부족했다. 대다수의 사람은 나무 접시를 사용하였고, 귀족들은 금속 접시를 사용하는 것에 만족했다. 특별한 경우에만 금과 은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하였다. 이 모든 것이 중국 포세린이 도입됨으로 바뀌었고, 고품질 포세린으로 만든 식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였다. 유럽은 극동과의 무역만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포세린을 모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산화주석을 유약으로 사용하여 포세린의 흰색 모습을 표현하는 모조품을 만들었지만 포세린의 투명도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유럽 장인들의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포세린 기술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 그러나 최선은 중국 석기와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708년 독일의 마이센은 소위 ‘흰 포세린’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생산했지만, 그 제품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포세린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북부의 석기와 더 흡사했다. 현재 이름이 잘 알려진 많은 다른 제조업체들은 그 당시 정품 포세린을 생산할 수 없었지만, 이탈리아의 마졸리카, 영국의 웨지우즈 및 네덜란드의 델프트 도기와 같은 고품질 석기로 여전히 명성을 얻었다. 유럽은 상기류식 가마로 고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의 하기류식 가마(Down-draught kiln)가 온도 조절에 더 뛰어났다. 중국 포세린을 재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재료의 선택과 가공 방법이었다. 1671년 찰스 2세로부터 특허를 받은 풀햄의 존 드와이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중국 포세린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흰색의 석기만 만들 수 있었다. 유럽의 이러한 제품들은 중국의 정교한 포세린의 질, 강도, 반투명도에 접근할 수 없었다. 포세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성 동안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희게 되어야 하며, 두께가 3 mm 이하의 용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 3 mm 보다 두꺼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포세린 조차도 불투명하게 보인다. 따라서 석기와 포세린의 주요 차이점은 포세린은 흰색이고 반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석기는 하얗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지만 항상 불투명한 두께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1717년 예수회 선교사 프랑수아 그자비에 당트르콜 신부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비밀이 유출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만연했었다. 이 비밀 유출을 “가장 최초의 산업스파이 사건”이라고 불린다. 당트르콜은 당시 중국 포세린의 중심지였던 징더젠이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포세린 제작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중

국 도공들과 친하게 지냈다.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 다니며 사용된 재료의 샘플을 입수하였으며, 제작 방법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도 얻었다.² 그는 포세린 제조 방법에 대한 자세하고 필수적인 설명과 함께 샘플을 프랑스 친구에게 보냈다. 이것은 다시 프랑스 과학자인 르네앙투안 페르쇼 드 레오뮈르에게 전달되었다. 이 후 그는 중국 포세린의 조성이 약 50%의 고령토, 20-25%의 실리카 및 25-30%의 장석이라는 것을 밝혔다.² 차이나 클레이로 알려진 고령토는 수화 규산알루미늄이다. 실리카는 석영(이산화규소) 형태이며, 소성 후 미세하게 분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장석은 나트륨과 칼륨-규산 알루미늄(sodium and potassium-aluminium silicates)의 혼합물이다. 그러나, 1700년대 초 드레스덴의 마이센 공장은 이미 고령토, 실리카 및 설휘석고를 기반으로 매우 무난한 포세린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포세린의 조성이 밝혀지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조금 의외다. 포세린을 만드는 기술은 이 세 가지 일반적인 광물(고령토, 장석 및 석영)을 취하여 고온에서 굽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화학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린 후 몇 년 안에 유럽에서 정교하고 투명하고 새로운 포세린이 개발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³ 당트르콜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초에는 이 포세린이 치과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재료로 바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60년이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바뀌게 되었다. 곧 다양한 색조로도 만들 수 있었고, 그 반투명도는 색상의 깊이를 제공하여 치과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로 생겨났다.

포세린을 치과에 적용한 것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당시 치아가 하나도 없는 프랑스 약제상인 알렉스 튜샤투의 틀니가 구멍이 많은 상아로 만들어져서 구강액을 흡수하고, 결국 심하게 얼룩지고,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매우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는 무척 고생하였다. 이런 상태는 그 당시 너무 흔한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상아 틀니를 포세린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생각했었다. 1774년 튜샤투는 파리 근교 생 제르맹 앙레에 있는 게라르 공장에서 자기의 손 기술로 포세린 틀니를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며, 국립외과학회에도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⁴ 그러나, 1788년 프랑스 치과의사인 니콜라스 뒤후아드 쉬몬트가 소위 미네랄 반죽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포세린 치아가 포세린 베이스에 부착된 최초의 포세린 틀니를 만들었다. 포세린은 소성 시 상당히 수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위업이었다. 틀니가 입에 잘 맞으려면 이 수축을 고려해야 했었다. 왕립과학원과 파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에 발표하여 찬사를 받았으며, 특히까지 받았다. 그 이후로 경질고무(vulcanite)와 같은 다른 재료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틀니 분야에서 포세린 틀니 베이스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포세린 치아는 아크릴 틀니 베이스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III. 결론

중국에서 개발된 포세린 제작 방법은 치과 재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포세린의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는 베니어, 인레이, 크라운 및 브릿지 부분이며, 여기서 포세린의 미적 품질은 법랑질 및 상아질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재료보다 여전히 우수하다. 포세린은 포세린 재킷 크라운이란 형태로 크라운 분야에도 사용된 최초의 재료였다. 포세린으로 묘사되는 많은 새로운 재료가 현재 시장에 등장했다. 이것은 초기 포세린과 비교할 때 사실 매우 다른 형태이다. 앞으로도 더욱 자연 치아와 색상과 투명도가 유사하며, 충분한 강도의 치과포세린이 개발되어 심미 치과 보철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1. Jones DW. Development of dental ceramics. An historical perspective. *Dent Clin North Am* 1985;29:621-44.
2. Van Noort R. *Introduction to Dental Materials*, ed 3. London: Mosby, 2008.
3. Kelly JR, Nishimura I, Campbell SD. Ceramics in dentistry: Historical roots and current perspectives. *J Prosthet Dent* 1996;75:18-32.
4. Ring ME.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Abrams, 1985.

〈교신저자〉

- 김 성 훈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롯데골드로즈 2차 2층 201호 김성훈 치과의원
- Tel : 02-2038-2805, E-mail : ksh1250@snu.ac.kr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영국(2)

- 캐리커처(Caricature)

권 훈
Kweon, Hoon

- Matthew Darly(1741-1792) : The Dentist(1778)
Robert Dighton(1752-1814) : The DENTIST scaling the LADIES TEETH(1785)
Unknown : The dentist(1784)
Joshua Baldrey(1754-1828) : Parish Dentist(1799)
Henry Bunbury(1750-1811) : Legerdemain(1790)
William Davison(1781-1858)
1. The Town Tooth Drawer(1812-1817)
2. The Country Tooth Drawer(1812-1817)
3. Hob and Stage Doctor(1812-1817)
Edward Dighton(1752-1819) : The London Dentist(1784)
Nathaniel Hone(1718-1784) : The Ruspini Family(about 1775)
John Collier(1708-1786)
1. Acute Pain(1773)
2. Laughter and Experiment
3. Mirth Anguish
4. Fellow Feeling
5. Possession and Envy
6. Ugliness
Edmund Blampied(1886-1966) : The farmer dentist(date unknown)
Unknown : The Country Doctor, or Farrier turned Tooth Drawer
Unknown : The Country Tooth Drawer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영국(2) - 캐리커처(Caricature)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머리말

역사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1749-1832)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He who cannot draw on three thousand years is living hand-to-mouth.” 직역하면 3천 년의 시간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윈스턴 처칠의 말은 더 주옥같이 와 닿는다. “The farther backward you can look, The farther forward you will see.” 더 많은 과거를 회고할수록 더 많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인들의 생각을 발판 삼아 지난 수백 년 동안 치의학이 그림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치과의사학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은 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시대의 역사를 말해준다. 과거의 그림을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시절의 역사를 알고 그림을 본다면, 과거의 모습이 책보다 더 생동감 있고 머릿속 깊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Matthew Darly(1741-1792) : The Dentist(1778)

Matthew Darly(1741-1792)는 1778년에 동판화 ‘The Dentist’를 제작하였다(그림 1). 영어 단어 Dentist는 현대 치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 1678-1761)와 연관이 깊다. 1728년 출판된 그의 저서 ‘Le Chirurgien Dentiste(The Surgeon Dentist)’에서 dentist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는 실외(장터)에서 발치하던 tooth puller의 지위를 실내(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직업인 Dentist로 격상시켰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반드시 환자는 바닥이 아닌 의자에서 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키 작고 뚱뚱하고 가발을 쓴 치과의사가 떨리는 손길로 환자를 보고 있다.¹ 그의 왼손에는 약간 구부러진 기구가 있고, 오른손은 환자의 하악 치아를 만지고 있다. 추축하건데 시클 스케일러(sickle scaler)로 핸드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슴이 드러나도록 깊이 파인 드레스, 우뚝 솟은 올림머리에 모자까지 쓴 채로 치료를 받

고 있는 가녀린 중년 부인은 곧 닥칠 고통을 예상한 듯 손에 힘을 꽂 쥐고 있다. 그녀의 안모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수치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남아있는 치아의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녀는 잔존치 보존을 위해 통증을 무를 쓰고 정기적인 스켈링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진료실 벽에 초상화처럼 걸린 치아 그림은 해석이 난해하다. 불규칙한 치열에 심각하게 파괴된 치아 그림을 보면서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환자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림이 치과의사의 실력에 의심을 품게 할 수도 있다. 생각과 해석의 차이는 그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림의 하단에 써져있는 문구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 문장에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치과의사의 열정이 사뭇 감동적이다.

I cures all the disorders of the mouth. I draws teeth in a minute, without pain.

I makes natural or artificial teeth & have invented a substance that answers the purpose of gums.

Robert Dighton(1752-1814) : The DENTIST scaling the LADIES TEETH(1785)

1785년 Robert Dighton(1752-1814)이 메조틴트(mezzotint) 기법으로 동판화 The DENTIST scaling the LADIES TEETH(그림 2)를 제작하였다.² 그림에 써진 제목을 자세히 보면 ‘fcaling’처럼 보인다. 알파벳 S와 F가 혼동된다. 초기 현대 영어에서 s와 long s가 혼합되어 사용되었는데, long s는 알파벳 f와 비슷한 모양으로 써져 사용되었다. ‘fcaling’처럼 보인 이유는 18세기말에 사용된 long s의 흔적 때문이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단어 스켈링(scaling)의 어원은 이렇다. tooth scraper로 치석(tartar)을 제거할 때 마치 칼로 생선의 비늘(scale)을 벗겨내는 것처럼 치석이 제거되어 scaling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William Humphrey가 1773년 출판한 책에서도 그림2와 비슷한 구도를 가진 작품 ‘Teeth drawn with a touch’이 있다(그림 3). 제목 그대로 치과의사가 발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동판화에 수채화로 색상을 입힌 그림이 더욱 실감나게 보인다(그림 4).



그림 1. Matthew Darly (1741-1792) : The Dentist (1778).



그림 2. Robert Dighton (1752-1814) : The DENTIST scaling the LADIES TEETH (1785).



그림 3. Unknown : Teeth drawn with a to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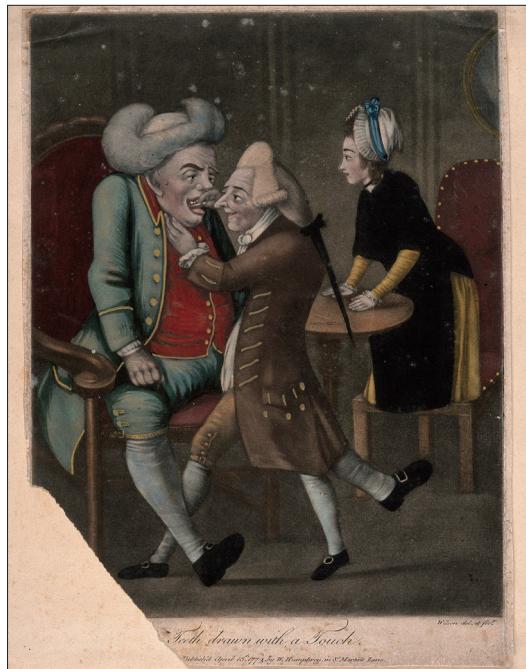


그림 4. 그림 3에 수채 물감으로 색상을 입힌 그림.

스켈링의 중요성은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활동한 이슬람교도 외과의사 알부카시스(Albucasis, 936-1013)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는 치의학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는데 14개의 scaler가 한 세트인 기구를 제작하였고, 치아가 발거될 때 치아가 들어 올려진다고 해서 발치에 사용된 기구를 elevator(발치기자)라고 명명하였다. 그림에서 치과의사는 한 손에는 리트렉션을 위해 설압자(spatula), 다른 한손에는 치석 제거 기구(scaler)를 들고 스켈링을 하고 있다. 여성 환자는 짧은 소매의 블라우스 복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자의 집에 치과의사가 출장 진료를 온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의 옆에 놓여있는 모자와 지팡이가 이러한 추측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Unknown : The dentist(1784)

18세기 말 영국의 치과 진료 장면을 보여주는 익명의 판화 'The Dentist(1784년)'는 그림보다는 하단에 써진 4행시가 가볍지 않은 울림을 준다(그림 5). 아래에 원문을 실고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해본다.³

A dentist fam'd for easing pain
And Pockets too, contriv'd to gain
By many a repeated Fee
A fortune large-then who but he
So Fame reports "but" says a wag
"The Fellow has no cause to brag
Like many more twist Northe and South
He does but live from Hand to M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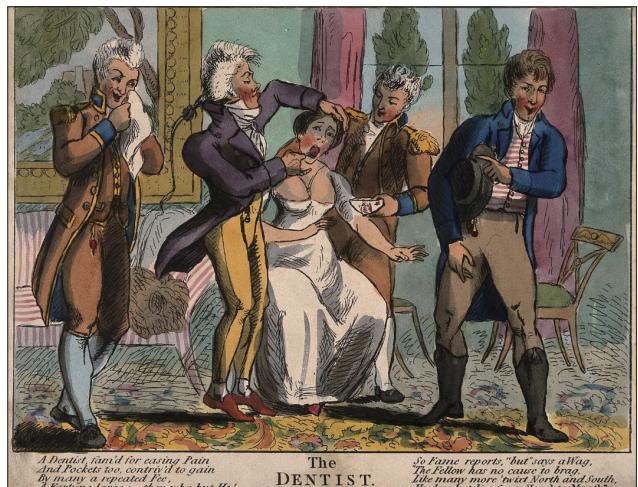


그림 5. Unknown : The dentist (1784).

치통 완화로 유명한 치과의사가 돈도 벌려고 애를 쓰는구나.
 여러 번 반복되는 치료비를 통해서 치과의사 말고 누가 부자가 되겠는가?
 풍문은 저러지만 실상은 이런다고 한다.
 “치과의사가 자랑하거나 뽐낼만할 이유는 없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림뿐만 아니라 4행시도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보라색 옷의 콧대 높은 치과의사는 중년 여성의 치아를 발치하고 있다. 치과 직원으로 보이는 갈색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는 진료 중인데 농담을 하면서 웃고 있다.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파란색 옷의 또 다른 남자는 치료를 받고 나갈려는 환자로 추측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치과의사의 태도가 치과에 대한 환자의 생각을 결정짓는다.

Joshua Baldrey(1754-1828) : Parish Dentist(1799)

치과 환자가 복적대는 18세기 이발외과의(barber-surgeon)의 진료실의 전경으로, 영국 판화가 Joshua Baldrey(1754-1828)의 1799년 작품 'Parish Dentist'이다(그림 6).² 제목은 동네 치과의사 정도로 해석되며, 대기 중인 환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모두 뺨은 부어 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그림 7). 겁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발외과의는 tooth key를 이용하여 하악 치아 발치를 위해서 환자를 질질 끌고 가고 있다(그림 8). 치료인지 고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환자는 자포 자기의 심정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보지만 치료는 계속된다. 고양이는 다른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고



그림 6. Joshua Baldrey (1754-1828) : Parish Dentist (1799).



그림 7. 그림 6을 확대한 모습.



그림 8. 그림 6 좌측을 확대한 모습.

있다. 이곳은 외과의사 진료실이라기 보다는 마네킹 머리와 가발 스탠드가 있는 것으로 미용실과 가발 가게로 주업무인 것 같다. 빗, 면도기, 병이 창문 앞에 전시되어 있으며 끈으로 묶인 치아들은 이곳이 치과 치료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간판 역할을 한다.

이 그림은 18세기말 치과 치료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료다. 진료받는 환자의 모습이 끔찍하고 극단적으로 보인다. 이 당시 많은 환자들이 치과 치료의 경험이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발치를 받다 턱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Henry Bunbury(1750-1811) : Legerdemain(1790)

영국 풍자화가 Henry Bunbury(1750-1811)의 1790년 작품 'Legerdemain'이 앞에서 설명한 딱 그런 그림이다 (그림 9, 10). 그림의 좌측에는 chiropodist(발치료사)가 우측에는 tooth-puller가 진료중이다. 심지어 진료실 벽에는 발로 그린 듯한 '발'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다.

그림 9는 18세기 후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발-외과의(barber-Surgeon) 진료실 풍경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작품이다.⁴ 그림 우측에서는 발치가 진행 중인데 환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서 고통이 충분히 관람객에게 전달된다. 시계 옆에 세워진 지팡이와 모자가 어르신 환자임을 추정케 한다. 술자의 왼발은 의자를 지지하고 있고, 오른발은 환자의 한쪽 발에 얹고 있다. 또한 술자의 왼손은 환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데 아마도 환자의 주먹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오른손 한손으로만 발치를 하는 묘기를 부리고 있다. 나름 진료의 신속성을 위하여 술자의 자켓 호주머니에 발치 기구들이 담겨져 있어 측은한 마음이 듈다.

반면 그림 왼쪽에서는 짓궂은 발 치료사가 환자를 등 뒤로 앉은 채 환자의 왼발을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고정한 후, 양손으로 환자의 발가락을 잡고 티눈(corn)을 제거하고 있다. 발 치료사는 환자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장난치듯 치료에 임하고 있다. 게다가 티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입에 물고 있으며, 바닥에는 기구마저도 나뒹굴고 있다. 이러한 상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발을 치료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치료하고, 그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만졌을 것이다. 풍자 그림이기에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터무니없는 그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치과에서 감염방지에 관한 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술자와 스텝의 손에 대해서도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림이다.



그림 9. Henry Bunbury (1750-1811) : Legerdemain (1790).



그림 10. 그림 9 동판화.

이발사와 외과의사 사이의 오랜 싸움 끝에 어떤 치료를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없는지 결정되었다. 그들은 별도의 길드로 연합했고 치아 발치는 두 그룹의 활동 분야의 일부로 남아있게 되었다. 외과 의사는 상처 치료, 사혈 및 티눈 제거 치료를 포함한 일상적인 외과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입안에서 간단한 치료를 할 수도 있었는데, 즉 하나 이상의 치아를 발치도 가능했다.

발과 입을 진료하는 모습이 한 프레임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 더 있다. 벨기에 화가 Adriaen Brouwer (1605-1638)의 작품 'The Operation(1630)'이다(그림 11). 17세기 이발-외과의는 티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수술부터 발치까지 시행하였고, 이러한 진료실 풍경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⁵ 17세기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이발외과의가 담당하였다는 수많은 문헌과 그림들이 있다. 이발외과의는 주로 발치와 치석 제거에만 제한적으로 치아를 치료하였기에 치의학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발-외과의는 그때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림 11. Adriaen Brouwer (1605-1638) : The Operation (1630).

그림의 제목에 나름 의미가 있다. *Legerdemain*(레저드메인)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요술과 속임수,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손이 빠른, 마술적인 솜기술이다. 특히 티눈 제거에 대단한 솜씨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명찰을 차고 있었다고 한다. 티눈 제거든 발치든 치료의 핵심은 시간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의 시간을 최소로 하는 것이 그때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치과의사의 손이 빠르고 손재주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마술사가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구현하듯이 치과의사는 치과 기자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마술과 같은 치료를 선물할 수 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데이빗 카퍼필드나 이은결은 마법의 지팡이에 의존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하여 관객에게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고 있다. “The Magic is not in the WAND, but in the MAGICIAN.”

William Davison(1781-1858)

1. The Town Tooth Drawer(1812-1817)
2. The Country Tooth Drawer(1812-1817)
3. Hob and Stage Doctor(1812-1817)

영국 화가 Robert Dighton(1752-1814)의 그림을 기초로 하여, 약사이자 인쇄업자인 William Davison (1781-1858)이 18세기 말 영국에서 치아를 치료하는 모습이 담긴 동판 판화를 출판하였다. 'The Town Tooth Drawer'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 주택의 거실(그림 12), 'The Country Tooth Drawer'은 시골 마을의 대장간(그림 13), Hob and Stage Doctor는 시골 장터에 세워진 무대로 보인다(그림 14). 그림 12의 발치사 모습에서 신사의 품격과 매너가 물씬 풍겨진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과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림 13에서는 뛰어난 손기술을 가진 대장장이가 발치를 하고 있다. 발치가 본업은 아니지만 대장장이의 장인정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림 14에는 떠돌이 발치사의 속임수가 엿보인다.

1. The Town Tooth Drawer(1812-1817)

그림 12의 장소는 진료를 받고 있는 귀족 부인의 집 거실이다(그림 12). 발치사는 정장(frock coat)과 가발을 착용하고 있으며 바른 자세로 tooth key를 이용하여 부인의 상악 중절치를 발치하고 있다. 그 옆에는 하녀가 두 손을 모은 채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에 발치사의 조수인 흑인 소년은 기구 상자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놀란 고양이는 아마도 고통스러운 환자의 울부짖음을 뜻하는 작가의 의도로 해석된다. 벽에 걸린 새장에서 들리는 평화로운 새소리는 진료실의 소음과 불협화음을 이룬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개업의(dentist)가 탄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치과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독립된 진료실에서 발치, 수복, 보철 및 치주 치료를 시행하였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치과 의술은 존경받는 전문직업이라기 보다는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참고로 언급하면 1858년에 치과의사 면허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고 1860년 전문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최초로 배출되었다. 1800년대까지 영국에서 활동했던 치과개업의는 대략 60여명(런던 40명)이었다. 그림 12에서 창문에 비치는 꼭대기 탑은 영국 북동부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에 있는 St. Nicholas Cathedral이다.⁶ 그림 12의 치과의사는 60명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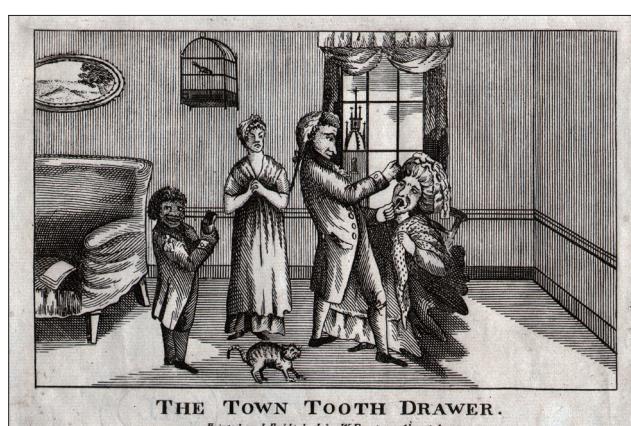


그림 12. William Davison (1781-1858) : The Town Tooth Drawer (1812-1817).

2. The Country Tooth Drawer(1812-1817)

그림 13은 영국의 전형적인 깡시골에 있는 대장간 내부의 전경이다(그림 13). 유리창도 없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언덕과 오두막집이 외딴 곳이라는 근거다. 발치를 하는 대장장이의 모습에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료 사각지대인 시골에는 떠돌이 돌팔이 의사도 찾아오지 않았기에 떠오른 대안이 대장장이였다. 18세기 시골에서는 흔한 일상이었고 19세기 후반까지 대장장이가 발치를 도맡아 했다고 한다. 대장장이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발치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손기술을 지녔고, 필요한 기구도 직접 만들 수 있었다.

그림에서 의사에 앉은 시골 아낙이 고통스럽게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⁷ 얼마나 아팠으면 그녀의 오른손은 대장장이의 코를 꼬집고 있고 왼손은 그의 오른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있다. 환자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발치하는 대장장이의 그 철저한 직업정신에 더 가슴이 저린다. 술자는 여전히 발치에 몰입하고 있고 보조자는 환자 뒤에서 완벽하게 머리를 고정하고 있다. 여성의 아들로 추정되는 소년은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화가 나 있어 보인다. 마치 엄마를 힘들게 하는 대장장이의 등을 힘껏 때릴 모양이다.



그림 13. William Davison (1781-1858) : The Country Tooth Drawer (1812-1817).

3. Hob and Stage Doctor(1812-1817)

Hob and Stage Doctor(시골뜨기와 무대의사)의 공간적 배경은 시골 장터에 세워진 무대다(그림 14, 15). 시골 장터에는 즐거움과 정감이 넘쳐흐르지만, 떠돌이 발치사(itinerant tooth drawer), 돌팔이 의사(charlatan), 가짜 의사(quack)에게 장터는 절호의 기회이고 최고의 영업장소이다. 순진하고 남을 잘 믿는 시골 사람들이 그들의 주 타겟층이었다.

발치사는 정장(frock coat)을 입고 가발을 착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삼각 모자를 쓰고 있는데 진한 색 옷과 어우러져 마법사가 연상된다. 마치 요술을 부리듯 발치 할 태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외국 서적에서는 그림의 떠돌이 발치사를 mounterbank(엉터리 약장수)로 서술하고 있고, 영영사전에서는 mounterbank를 'a person who sold quack medicines in public places'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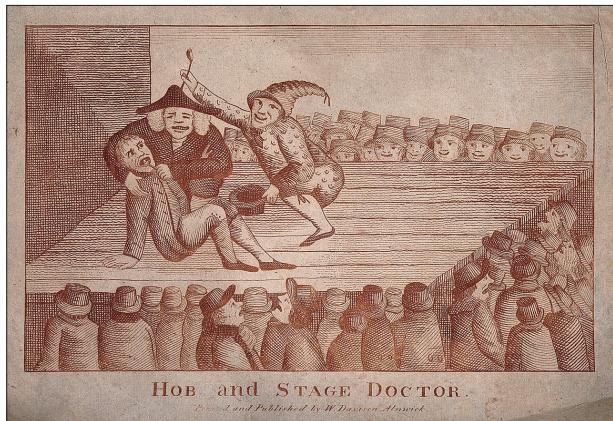


그림 14. William Davison (1781-1858) : Hob and Stage Doctor (1812-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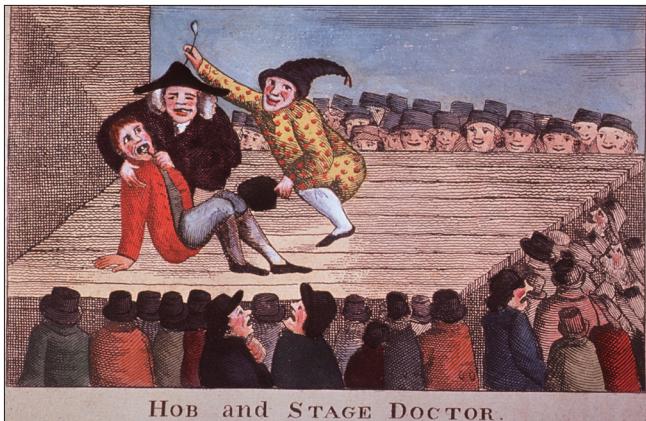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4에 색상을 입힌 모습.

18세기 영국에서는 치아와 전혀 무관한 직종의 사람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치과 치료에 참여하였다.⁸ 그 예가 바로 mounterbank이며 이외에도 opportunist(기회주의자)와 casuals(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모두 치과의사인 척 연극을 한 사람들이다. 그 연극이 진실인 양 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패악을 저질렀다. 영영사전에 적힌 opportunist와 casuals의 뜻은 다음과 같다.

Opportunist(기회주의자): If you describe someone as opportunist, you are critical of them because they take advantage of any situation in order to gain money or power,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ir actions are right or wrong.

Casuals(일용직 노동자): If you are casual, you are, or you pretend to be, relaxed and not very concerned about what is happening or what you are doing.

그림에서 환자는 바닥에 앉은 채 mounterbank(엉터리 약장수)에게 헤드락을 당하면서 하악 전치부 발치를 받고 있다. 광대 복장을 하고 있는 mounterbank의 조수는 담뱃대(clay pipe)를 흔들고 있다. 그의 역할은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는 치료를 구경하는 관중에게 향한다. 청중에게 오락을 제공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써 치과 치료의 공포감을 상쇄시키는데 있다. 무대 주변에 있는 관객들의 표정은 두 가지다. 환자의 발치 장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진한 청색 코트를 입은 세 남자는 공포에 휩싸여 겁을 잔뜩 먹고 있다. 환자가 내는 고통의 신음 소리와 군중의 웃음소리가 섞여져서 그림 밖으로 들리는 듯 하다.

프랑스 판화 화가 Adrien Victor Auger(1782-1834)의 'San Efforts(1817)'는 의상을 잘 차려입고 가발을 쓴 치과의사가 발치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16). 그림 14 Hob and stage doctor와 비슷한 구도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진료가 행해지는 무대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무대 배경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장면이 그려진 커다란 캔버스가 걸려 있다. 'Machoire Dentisti Du Grand Mogol' 문구는 자신이 궁정에서 근무한 발치사임을 보여주는 일종의 광고라 할 수 있다.² 그는 분명히 매우 침착하게 발치를 수행하고 있다. 기괴한 종이로 만든 이빨과 어금니가 끈으로 묶여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이곳이 치과 치료를 하는 곳임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16. Adrien Victor Auger (1782-1834) : San Efforts (1817).



그림 17. Edward Dighton (1752-1819) : The London Dentist (1784).

Edward Dighton(1752-1819) : The London Dentist(1784)

Nathaniel Hone(1718-1784) : The Ruspini Family(about 1775)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애국자인 루이 파스퇴르(1822-1895)가 남긴 명언의 본 뜻은 과학자로서 뛰어난 발견의 영광을 국가에 바친다는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사에게 국경은 있는가? 언어적 장벽만 해결된다면 치과의사에게 국경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바르톨로뮤 루스피니(Bartholomew Ruspini, 1728-1813)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모데나(Modena)에서 외과학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치의학을 공부한 후 1766년부터 30여 년간 영국 런던에서 치과를 개원하였다. 루스피니는 치과의사로 유명인사가 되어 영국 왕세자(나중에 조지 4세가 됨)의 치과주치의까지 역임하였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영국을 오고 간 루스피니는 글자 그대로 국경이 없는 치과의사였다.

토머스 룰런드슨(Thomas Rowlandson, 1756-1827)은 'Transplantation of teeth(1787년)'에서 불우한 어린 소년과 소녀에게서 건강한 치아를 돈을 주고 사서 귀족 부인에게 이식술을 하는 루스피니를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로버트 다이튼(Robert Dighton, 1752-1814)의 작품 'The London Dentist(1784)'에서 루스피니는 전형적인 로코코(Rococo)풍의 그림 속에서 세련되고 화려하게 그려졌다(그림 17).

그림 17은 로버트 다이튼의 The Town Tooth Drawer(그림 12)와 구성요소가 비슷하여 비교해서 보면 더 재미있다. 이번 그림의 장소도 화려하고 천장이 높고 웅장하다. 창문에 비치는 건물은 근위병이 서있는 St. James Palace이다. 이 무렵 세인트 제임스 왕궁이 보이는 팔맬(Pall Mall) 거리에서 개원을 하고 있었던 유일한 치과의사가 바로 루스피니였다. 이전 그림과의 다른 점은 소파에 타을 대신에 현악기와 악보가 놓여있다. 아마도 취미로 음악을 즐기는 루스피니의 악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루스피니가 치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없었지만 나름 의미있는 발자취가 남겨져 있다. 1768년 출판된 저서 'A Treatise on the Teeth, Their Structure and various Diseases'를 통하여 어린이 충치의 조기 치료를 주장하였다.⁵ 그러나 그의 주장은 무시되었고 결국 영국국민들은 광범위한 치아 상실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생을하게 되었다. 루스피니는 그 당시 사용되던 구강 미러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미러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개선시켰다. 루스피니는 ivory denture 보관을 위한 도자기 용기를 제작하였고, 그 용기는 Ruspini display holder라고 불리운다(그림 18).⁹

1808년 포셀린으로 단일치를 최초로 개발한 이탈리아 치과의사 Guiseppangelo Fonzi(1768 -1840)로부터 사용 방법을 전수 받은 루스피니는 영국 부유층에게 유명한 치과의사가 되었다. 그는 치과의사로서 얻은 직업적 성공을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1788년 런던에 있는 프리메이슨(freemason)이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루스피니는 상당 부분의 재산을 들여 고아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개교한 날의 장면이 화가 Francesco Bartolozzi(1728-1813)의 작품으로 남아있다(그림 19). 그림에서 루스피니는 어린 소녀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고, 그림의 우측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Prince of Wales(영국 왕세자, 첫째)와 Duke of York(요크 공작, 둘째)이다. 1798년에는 고아 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개교하였고 현재 이 학교의 공식 명칭은 RMTGB(Royal Masonic Trust for Girls and Boys)이다.



그림 18. Ruspini display ho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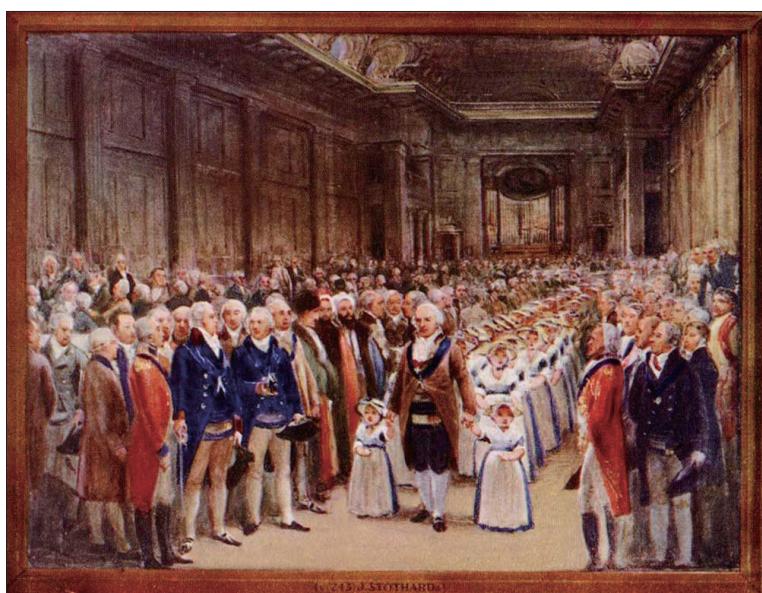


그림 19. Thomas Stothard (1755-1834) : Chevalier Bartholomew Ruspini leading the orphanage children (1798).

직업적 훌륭함과 역경과 가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푼 관용을 인정받아 기사 작위인 슈발리에(Chevalier)가 1789년 루스피니에게 수여되었다. 2016년 필자는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Surgeon's Hall 치의학 전시실을 방문하여 루스피니 가족이 그려진 그림 The Ruspini Family(1775) 원본을 직접 볼 수 있었다(그림 20). 루스피니의 인생항로는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프랑스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는 영국이었다. 그리고 그가 운전했던 배에는 수많은 고아 소녀와 소년들이 승선해있었다. 루스피니의 인생이 필자로 하여금 상념에 젖어들게 한다.

John Collier(1708-1786)가 1773년 출판한 'Human Passions Delineated'에 소개된 12장의 그림 중에서 6장이 치과와 관련된 작품이다(그림 21, 22). 그림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시리즈다. 'Tim Bobbin'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Collier는 특히 사람의 얼굴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6장의 그림에는 치과의사가 발치를 하는 힘든 여성과 그 당시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묘사되어 있으며, 그림 아래에 써진 Collier의 시가 그림을 잘 설명해준다.⁶ 3장의 그림 원본은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워릭셔(Warwickshire)에 있는 콤튼 베르니(Compton Verney) 아트 갤러리에 전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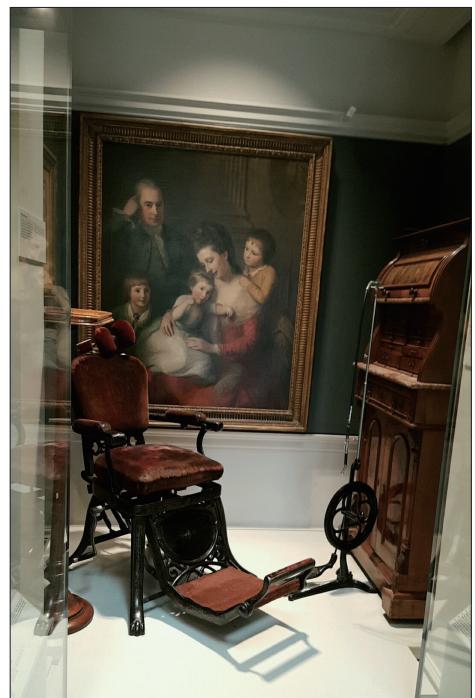


그림 20. Nathaniel Hone (1718-1784) : The Ruspini Family (about 1775).



그림 21. John Collier (1708-1786)가 출판한 Human Passions Delineated (1773).



그림 22. John Collier (1708-1786).

John Collier(1708-1786)

1. Acute Pain(그림 23)
2. Laughter and Experiment(그림 24)
3. Mirth Anguish(그림 25)
4. Fellow Feeling(그림 26)
5. Ugliness(그림 27)
6. Possession and Envy(그림 28)

Collier는 에칭 판화 시리즈에 손으로 아름답게 채색하였다. 비록 1773년의 원본이 아닌 1810년의 재인쇄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리즈는 공격적인 풍자 없이 전형적인 영국식 유머 감각을 지닌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구성된다.

1. Acute Pain(그림 23)

A Doctor once much puzzled was
To find out ways and means
How teeth to draw of Ev'ry class,
Without such wracking pains.

A packthread strong he ty'd in haste
On tooth which sore did wring
He pull'd, the patient followed fast
Like tewzer in a string

다양한 발치 방법을 찾는데 혼동을 겪는 치과의사가 있었다.
끔찍한 고통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치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통증 때문에 발치할 치아에 실을 신속하고 단단하게 묶었다.
그는 실을 힘껏 당겼으나 환자는 목줄을 한 강아지처럼 재빠르게 따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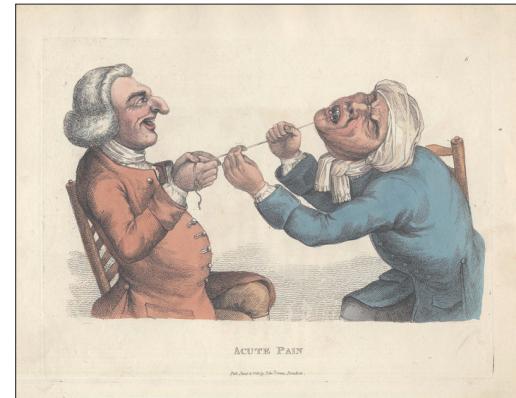


그림 23. John Collier (1708-1786) : Acute Pain.

2. Laughter & Experiment(그림 24)

He missed at first, but try'd again,
Then clap'd his foot o'th chin;
He pull'd - the patient roared with pain,
And hideously did grin.

But lo! Capricious fortune frown'd,
And broke the clewkin string,
An threw him backwards on the ground
His head made floor to ring.



그림 24. John Collier (1708-1786) : Laughter and Experiment.

줄을 이용한 첫 번째 시도에 발치를 하지 못하였고 다시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였다.
 이번에는 의사의 발을 환자의 턱에 대고 줄을 세게 잡아당겼다.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환자의 모습을 보고 싱긋이 웃고 있다.
 그러나 보세요. 두 사람 모두 불운해서 그만 줄이 끊어졌다.
 게다가 의사는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3. Mirth Anguish(즐거움과 괴로움)(그림 25)

Now strings put fast on tooth that aches,
 Which round his hand he wraps,
 A glowing coal i'th tongs he takes,
 An to his nose he claps.

The sight and smell of fire drove back
 The patient's head in fright,
 Who drew his own tooth in a crack,
 And prov'd the doctor right.

의사는 다시 발치할 치아에 줄을 묶은 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그의 왼손은 뜨거운 속을 집게로 잡고 환자의 코에 가까이 대고 있다.
 숯불은 환자를 움직이게 하였고 겁에 질린 환자의 머리가 자연스레 뒤로 젖혀졌다.
 발치는 환자에 의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방법은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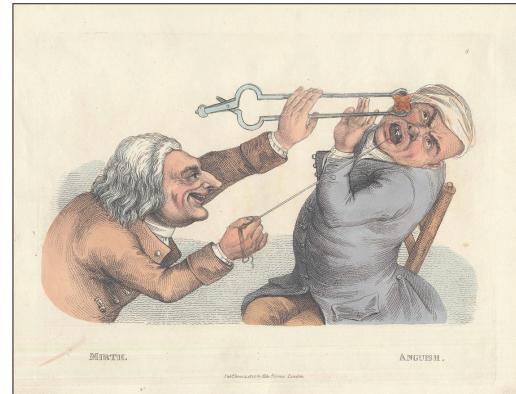


그림 25. John Collier (1708-1786) : Mirth Anguish.

4. Fellow Feeling(그림 26)

'An old wife next, with wrapt - up jaw,
 And her last tooth, did come :
 This tooth, thought he, I soon can draw,
 And gain some credit from.

So he the pincers took in hand,
 And pull'd with might and main,
 But these slipp'd off, we understand,
 Which much increas'd the pain.

This made the doctor cast about,
 And muse - in doleful dumps :
 If fast with large teeth drawing out,
 What must I do with stumps?

He puzz'ling star'd ; next man, thought he,
 I'll try the string again ;
 The knack I've found most certainly
 To do't with little 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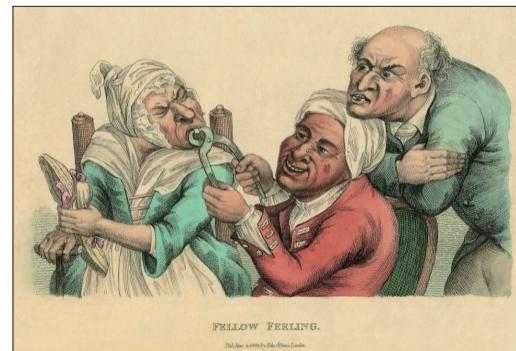


그림 26. John Collier (1708-1786) : Fellow Feeling.

5. Ugliness(그림 27)

'Three country bumpkins chanc'd to meet,
Whose phizzes look'd like vizards ;
The first, the second thus doth greet,
Thy face is like some wizzard's.

The ugliest of the ugliest sort
Thou art, or I'm mistaken ;
Some nature made thee all for sport,
Or sight hath me forsaken.

2d. But thou'rt all beauty in thy looks,
And ev'ry feature's pleasing ;
This I wou'd swear on holy books,
But for my sin increasing.

For sure thy nose, thy mouth, thy eye
Would frighten any mortal;

Pluto and Jove will thee by,
On ent'ring grim death's portal.
3rd The third and ugliest of the three,
Cry'd Lord!-how you're conceited!
I cannot stand a mute and see
Two neighb'ring friends thus cheated.

I wonder why such mortals shou'd
About their beauty fall out!
Were I as ugly I ne'er wou'd
From my poor cottage crawl out.

For with an ax and alder-tree,
I'd make two men as handsome :
Or live a slave in Tripoly,
And never sue for ransome.

Moral

This is an emblem of all human kind ;
We every one to our own faults are blind
Nay, though they're blazing, them we cannot see ;
They're beauties all, or pass from censure free'.



그림 27. John Collier (1708-1786) : Ugliness.

6. Possession and Envy(그림 28)



그림 28. John Collier (1708-1786) : Possession and Envy.

Edmund Blampied(1886-1966) : The farmer dentist(date unknown)

전문인 직업인 치과의사가 탄생하기 전인 19세기에 치통이 있는 사람은 지역 대장간, 정육점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¹ 대장장이 또는 정육점 주인은 도구를 잘 사용하여 발치에 재능이 탁월하였다. 간혹 경험이 많은 농부가 그 마을 사람들의 발치를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The Farmer Dentist다(그림 29). 농부의 부인이 환자의 머리를 고정하고 있다.



그림 29. Edmund Blampied (1886-1966) : The farmer dentist (date unknown).

Unknown : The Country Doctor, or Farrier turned Tooth Drawer

Horseshoe는 한자로 편자(鞭字)이고, 말발굽 바닥에 붙이는 U자 모양의 쇳조각을 말한다. 이러한 편자를 만들거나 말굽에 편자를 박아 넣는 사람이 Farrier(편자공, 鞭字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자공과 같은 직업을 장제사(裝蹄師)라고 한다. 한자 편자공에는 '장인 공'이, 장제사에는 '스승 사'가 사용된 것이 이채롭다.

편자공은 말의 건강을 상태를 고려하여 편자의 장착과 교체를 결정한다. 발톱이 자라는 속도는 교체에 영향을 주므로 말에 대한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지식도 필수적이다. 편자공은 빠른 손놀림으로 정밀한 작업을 신속하게 끝내야 하고, 갑작스런 말의 움직임에도 대처를 해야 하는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말이 출혈이 야기될 정도로 다치면 이 또한 편자공의 몫이었기에 horse-doctor(말전문 수의사)였다. 이러한 직업의 역사적 배경이 편자공으로 하여금 발치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었고 18세기 발치사로서 한 축을 담당하였다.

17세기 조선시대 마의(馬醫)가 18세기 서양의 편자공처럼 치아 치료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인물이 있다. 백광현(1625-1697)은 마의(馬醫)로 출발하여 어의(御醫)까지 지낸 조선 최초의 외과의다. TV 드라마 '마의'로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백광현은 침술을 독학하여 말을 치료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그는 사람의 종기도 침으로 시술하는 외과적 치료법을 개발하였고 현종과 숙종의 종기를 치료하여 어의에 오르게 되었다. 드라마 마의에서 현종의 여동생인 숙휘공주의 반려묘 이빨에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다.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는 수근거림이 들리지만 작가의 상상력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18세기 무렵 대장간에서 이루어지는 치과 치료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그림 30, 31). 그림에 나오는 세 사람의 표정이 사뭇 대조를 이룬다. 먼저 술자인 편자공은 친절한 것 같지만 웬지 미소가 꺼림칙하다. 그러나 자신감하나 만큼은 분기탱천하다. 반면 환자는 방어적이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며 격렬한 저항 때문에 가발이 곧 벗겨질 것 같다. 편자공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젊은 여성은 놀라면서도 감탄의 눈길로 치료 장면을 쳐다보고 있다.

첫 번째 베전에 색깔을 입힌 그림이 1792년 그려졌고 작가는 미상이나 제목은 'The Country Doctor, or Farrier turned Tooth Drawer'이다(그림 30). 그림 하단에 12줄의 시가 있는데 아래에 원본과 필자의 번역본을 올려본다.²



그림 30. Unknown : The Country Doctor, or
Farrrier turned Tooth Drawer.



그림 31. 그림 30의 동판화.

Why! Doctor of Horses, how comes it to pass,
That you condescend to draw teeth for an Ass!
Says Poll from the Magpie, who came for her Pot,
Just as Dentist fast hold of his Patient has got.
Who made such a noise betwixt roaring and praying,
That Polly declar'd it was nothing but braying;
I vow says the Dentist, I ne'er met with his fellow
For I give him no cause thus to roar and to bellow.
I am not like a Country Blacksmith who draws
His Patient from morning, till night, by the jaws;
I extract in an instant, above, or beneath,—
And will make his mouth easy, in spite of his teeth.

편자공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자네 당나귀 이빨은 잘 뺀다고 하더군

사람을 식별할 줄 아는 까치가 이렇게 말하더군

치과의사는 환자를 정확한 시간 안에 빠르게 치료한다고.

환자가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이런 소음을 냈겠는가?

앵무새는 그것은 단지 들키기 싫은 소음일 뿐이라고 하더군

나 편자공은 그런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맹세하네.

왜냐하면 나는 환자를 전혀 아프지 않게 하거든

나는 하루 종일 겨우 한 개를 발치하는 시골 대장장이가 아니네.

나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눈 깜짝할 사이에 발치를 하고

환자의 치아 상태가 안 좋아도 금방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네.

James Wilson(1735-1786)의 크기가 약간 작은 그림 제목은 'The Dentist, or Teeth drawn with a Touch'이며 하단에 4줄의 시가 써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그림 31).¹

Ye Worthies of the British Nation, (영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여),
Attend to my new Operation! (나의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보시오),
Let Colt's-Teeth, or Decay'd Ones come, (망아지 이빨 또는 벌레먹은 사람 치아 발치해요),
My Pincers Quick will ease your Gum. (내 핀셋이 당신의 잇몸을 편안하게 해줄 거에요).

Unknown : The Country Tooth Drawer

18세기 시골 마을 대장간의 풍경이다(그림 32, 33). 그런데 이번에는 편자공(Farrier)이 아닌 제철공(Blacksmith, 蹄鐵工)이다. 제철공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대형 겹자를 이용하여 중년 부인의 상악 중절치를 발거하고 있다. 여성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손으로는 자신의 모자를 꽉 쥐고 있으며 나머지 한손으로는 제철공의 터번(turban)을 잡아당기고 있다. 그림 오른쪽에 있는 환자의 남편은 걱정스럽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료 장면을 쳐다보고 있다. 이번 그림에도 하단에 12줄의 시가 있는데 아래에 원본과 필자의 번역본을 올려본다.²

Why dame how you hollow! and hold by my horn,
I never heard such a noise since I was born.
How you pinch up your hat, and squeeze up your eyes,
You've broke both the drums of my ears with your cries,
That I hurt you, you ne'er shall make me believe,
It's easy as drawing a pin from one's sleeve;
I challenge the Country for drawing you fool,
I've drawn teeth with prongs like a three legged stool,
No doubt on't quoth Gaffer, and lifts up his hand,
Yet half of an hour is a great while to stand;
And tho' you're surprised to hear my Dame bawl,
Yet thrice round the Shop is a pretty good hawl.

부인 왜 고함을 지르고 내 모자를 잡나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굉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당신은 네 모자를 꽉 쥐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네요
당신의 울음 소리 때문에 내 고막이 찢어질 지경이요.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의 치아를 발치하는 것은 옷소매에서 옷핀을 빼는 것처럼 쉬운데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치과가 없는 시골에 살아서 그렇다우
나는 다리가 3개인 의자처럼 생긴 기구로 발치를 할거라우
시골 영감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나에게 그냥 손만 드세요
여전히 30분은 서있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네요
비록 당신의 울음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가게는 3배정도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 나는 좋아요.



그림 32. Unknown : The Country Tooth Drawer.



그림 33. 그림 32에 색상을 입힌 모습.

18세기 치과 진료는 주로 두 곳의 장소에서 행해졌다. 이발외과의(barber-surgeon)는 고급스럽게 꾸며진 실내 공간인 응접실(Salon)에서 상류층을 대상으로 치료하였고, 반면에 떠돌이 발치사(itinerant tooth puller)는 실외인 시골 장터(market)에서 민초의 치과주치의 역할을 하였다. 장이 서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시골은 이발외과의와 발치사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치과치료사 각지대였다. 이처럼 격리된 마을에서 치통 환자가 발생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곤 했다. 바로 이때 구세주로 등장한 사람이 마을의 대장장이(Blacksmith)였다.

대장장이는 뛰어난 손재주와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었고, 집게(tong) 사용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였다(그림 34). 또한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이러한 대장장이의 직업적 특성이 시골 사람들을 위한 발치사 역할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그 덕에 사람들은 앓던 이를 뺀 후 시원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대장장이의 부업인 발치는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영어 단어 대장장이(blacksmith)에서 접미사인 smith는 금속을 다루는 직업을 뜻하며, ‘장인(匠人)’이라는 함축적 의미도 담겨있다.⁸ smith가 들어간 또 다른 직업들로는 금세공인(goldsmith), 은세공인(silversmith), 구리세공인(coppersmith), 총기제작자(gunsmith) 등이 있다. 금속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은 문장가(wordsmith), 대중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에겐 작곡가(tunesmith)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11세기 중반 무렵부터 서양에서는 성(surname)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조상의 직업을 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smith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은 <치과의사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1.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림 34. Unknown : The Country Tooth Drawer.

참고문헌

1. J. Menzies Campbell : Catalogue of the Menzies Campbell Collection of dental instruments, pictures, appliances, ornament, etc., Royal college of surgeon of Edinburgh, 1966.
2. G.J. Schade : Tandheelkunde in de Prentkunst, Uitgeverij, 2014.
3. Georges Dagen : Le dentiste D'Autrefois, La semaine dentaire, 1923.
4. De Vecchis, Beniamino : Dentisti Artisti Pazienti, La Cultura stomatologica, 1929.
5. Bernhard Wolf Weinberger: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Dentistry: With Medical and Dental Chronology and Bibliographic Data Vol 1, C. V. Mosby Company, 1948.
6. John Trevers, Martin Orskey : A series of 18th and 19th Century Caricatures on Dentistry, Wychwood Books, 2009.
7. Eric Curtis : Hand to mouth : Essays on the art of dentistry, Quintessence publishing co, 2002.
8. A.S. Hargreaves : White as whales bone : Dental services in early modern england, Nothern Universities Press, 1998.
9. John Woodforde : The strange story of false teeth, Routledge & kegan Paul, 1968.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1976년 교직사회를 강타한 유사학과 통폐합의 폭풍을 맞으며

임 창 윤
Lim, Chang-Yoon

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완성과 유사학과의 통폐합
2.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기초학과 통폐합 시도
3. 대학 본부에서 통합에 대한 전체회의
4. 맷음말

1976년 교직사회를 강타한 유사학과 통폐합의 폭풍을 맞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치의학)
임 창 윤

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완성과 유사학과의 통폐합

교직에 봉직(奉職)하면서 한때 교직을 포기하여야 할 위기에 처한 일이 있어 이러한 위기가 후학들에게 다시 반복될 수 있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976년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캠퍼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산 기슭에 완성되면서, 서울시내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단과대학들이 관악캠퍼스로 옮겨졌다. 그래서 서울 을지로에 있던 약학대학이나, 공능동의 공과대학과 상과대학, 동숭동의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 수의과대학, 제기동의 사범대학 등이 관악캠퍼스로 옮겨졌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현재와 같이 1) 관악캠퍼스, 2) 연건캠퍼스, 그리고 3) 수원캠퍼스 등 3군데의 캠퍼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과거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되고,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상과대학이 경영대학으로, 농과대학이 농생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유사명칭을 가진 학과간의 통폐합도 일부 이루어지고 종합화 10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8년 연건캠퍼스의 서울대학교 병원 건물이 신축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체에 이관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은 치과대학의 행정체계에서 소실되고 종전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던 부서를 제1진료부라 하여 일반외과나 일반 내과와 같은 진료 각과를, 그리고 진단을 주로 하는 의료의 보조 부서를 제2진료부라 하여 방사선과나 임상검사과, 재활의학과와 같은 의료의 보조 부서를 예속시키고,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각과를 제3진료부라 칭하여 치과와 의과의 임상각과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한 울타리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서 병원 기능은 소실되었다.

만일 1976년도의 유사학과 통폐합으로 치과대학의 기초학과가 의과대학의 기초학과들과 통합이 되었더라면 치과대학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연건캠퍼스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와 치의학과라는 기관이 세워질 뻔 하였다.

1978년도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운영해 오던 서울대학교의 설립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국립서울대학교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한국 고등 교육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한국 정부를 임시로 지배 관리하던 미군정청(美軍政廳,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Office)은 1946년 한국에도 종합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립대학안(國立大學案-국립서울대학교-The Draf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소위 國大案)을 발령하여 기존의 서울 근교에 산재하여 있던 관공립(官公立) 및 사립전문대학(私立專門大學)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종합대학교(綜合開學校)를 설립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 당시 서울 곳곳에 단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교사 이전을 거듭하면서, 1960년대 서울대학교의 캠퍼스는 1) 동숭동의 문리과대학·법과대학 캠퍼스, 2) 연건동의 의과대학·미술대학 캠퍼스, 3) 공릉동의 공과대학, 4) 청량리 문리과대학 이학부, 5) 종암동의 상과대학 캠퍼스, 6) 용두동의 사범대학·가정대학 캠퍼스, 7) 을지로 6가의 음악대학 캠퍼스, 8) 소공동의 치과대학 캠퍼스, 9) 수원의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캠퍼스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뿐뿐이 흩어져 있었다. 그 후로 1953년 4월에는 예술대학을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분화시켰으며, 농과대학 수의학부를 수의과대학으로 승격시켰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시설의 분산이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하였다. 각각의 독립적 성격을 띠었던 단과대학들은 일체감이 거의 없는 느슨한 연합체로서 존재하였고, 단과대학별 의식이 지나치게 강하여 단과대학 단위를 넘어서는 학술교류나 합동 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동일과목과 시설들이 단과대학별로 중복 설치되어 교육운영상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학문의 교류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이제까지 서울대학교의 구조였는데 이번 기회에 관악캠퍼스가 완성되면서 대학교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그 당시 개개 대학의 학과목은 통폐합 없이 각 대학의 학과목을 그대로 승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종합화 계획에서는 이제까지 단과대학별 학과목 중에 중복되거나 동일명칭의 학과목들을 한곳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에 융합시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업에서 행해지는 합성(흡수통합:M&A, Merge and Acquisition)으로 유사학과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단과대학들에 존재하던 유사명칭의 학과목도 통폐합되어 일원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연건동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내의 유사명칭을 가진 학과목들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2.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기초학과 통폐합 시도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유사학과 통합은 윤천주 총장이 직접 들고 나왔다. 특히 윤천주 총장은 기업의 흡수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윤천주 총장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기초학 교실들은 명칭이 같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리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보였다.

1976년 1월 의과대학의 기초학 교수들과 치과대학의 기초학 교수들의 합동 회의가 윤천주 총장의 주재아래 동숭동 의과대학 2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치과대학에서는 선우양국 치과대학 학장을 비롯하여 치과재료학 교수들

만 제외하고 5명의 치과대학 기초학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그 당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부 50-60대의 교수들이고, 교수 수도 많았지만 치과대학 교수들은 그 해에 교수 재임용이라는 과정을 거쳐 10여명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되면서, 치과 기초학전공 교수도 각 전공에 한사람 밖에 없어 전체 치과 기초전공 교수가 5명에 지나지 않았다. 치과약리학의 정동균 교수, 구강해부학의 유종덕 교수, 구강병리학의 임창윤 조교수, 구강생리학의 이종흔 조교수, 구강생화학의 정태영 조교수 등 5명의 교수들만 참석하게 되었다. 치과대학에서 제일 나이 많은 교수가 선우양국 치과대학 학장(치과재료학담당)이었다. 그리고 치과대학의 기초교수들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었다.

회의주제는 치과대학에 있는 구강생리학교실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과 통합하고, 구강생화학교실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과 통합되어야 하며, 구강병리학교실도 의과대학 병리학교실과 통합되어야 하고, 치과약리학교실도 의과대학 약리학교실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들과 치과대학 기초학 교수들이 같은 학문을 서로 교환하면서 각기 자기 전공을 발전시키는 것이 학문발전에 능률을 기할 수 있고, 시설관리의 면에서도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윤 총장의 이야기는 “사람 몸을 다루는데 어디 입만 따로 노느냐”는 것이다. “입안도 그렇고 치아도 그렇고 모두 사람 몸의 일부인데 같은 사람 몸을 다루는 기초학문이 서로 융합하면 더 능률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입안의 혈관이 다르고 신경이 다른 신체부위 것과 다르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사실상 치과대학 교수들은 할 말을 잊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러한 논리로 치과대학 교수들을 설득할 때 치과대학 구강생리학 교실의 이종흔 교수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수의 교수를 갖고 있는 치과기초학문은 결국은 소홀히 되고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요지로 항의를 하였다.

윤 총장의 흡수통합(M&A)논리는 기업이나 산업사회에서 적용되는 논리이다. 학문사회에서는 흡수융합 보다는 반대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이 옳은 것이고, 오히려 통폐합 하는 경우는 학문의 퇴보를 가져 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물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같은 학문이라도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 윤천주 총장의 통폐합논리는 전체주의적 편의의 함정에 빠져서 다원성의 존립을 부정해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통합이나 융합을 통해서 획일화에 이르는 전체주의시대의 사고로는 소수의 미세분야의 학문이 말살되고 말게 되는 것으로 윤천주 총장의 논리는 특정 학문의 말살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다. 또한 치과대학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치의학과라는 일개 학과로 남게 될 것이다. 치과대학을 폐교하자는 논리인 것이다.

특히 치과대학 젊은 교수들은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의과대학 교수들 대부분은 치과대학 젊은 교수들의 은사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은사 교수님들 앞에서 치과대학의 입장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으나, 치과대학 젊은 교수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윤총장의 제안에 거세게 반발하였다. 윤천주 총장과 치과대학 젊은 기초학 교수들 간에 설전이 벌어져서 윤천주 총장이 화를 내고 회의는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유산되었다.

지금도 그 때의 윤천주 총장과 설전을 벌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총장은 “여기가 어딘데 남의 집에 와서 큰소리냐?”고 우격다짐을 하고 치과대학 교수들은 거기에 맞받아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사실상 그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유신시대였기 때문에 윤총장의 태도도 명령하달식이지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

사실상 의과대학에서는 윤천주 총장의 제의를 찬성하는 교수들도 많았다. 의과대학의 생화학교실의 어떤 교수님

은 치과대학에 출강을 하시던 분인데, 노골적으로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는데 젓가락 하나 따로 떼어 놓고 밥상을 하나 더 차려놓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윤총장의 통합논리에 찬성발언을 하는 교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교수도 나중에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논리로 치과대학 기초학 교실들과 의과대학 기초학교실이 통폐합된다면 앞으로 치과대학이라는 고유한 명칭은 사라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치의학과로 전락하게 되거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의학과와 치의학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라는 명칭 어느 하나는 사라져야만 하게 되었다.

실제로 1978년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새로운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행정상으로 합치가 되어 종전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3진료부로 예속되고 치과대학과는 행정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이 문제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본부 회의에 회부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3. 대학 본부에서 통합에 대한 전체회의

이러한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이 문제가 관악캠퍼스 대학 본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다. 대학 본부에서도 1976년 여름방학 때에 관악캠퍼스 본부 건물 4층 회의실에서 서명원 부총장 사회로 관악캠퍼스, 수원캠퍼스 및 연건캠퍼스의 기초학 교수(생화학, 생리학, 미생물 전공 교수 그 외 관련 학과 교수)들이 모여 다시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의과대학의 생화학교실의 교수들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농생물대학의 생화학 교수, 수의대의 기초교수들과의 통폐합도 문제가 제기되어 의과대학의 생화학교수들은 관악캠퍼스로 연구실을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미생물학교수들도 자연과학대학의 미생물학과 교수들과 합쳐야 되기 때문에 관악 캠퍼스로 자리를 옮겨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의과대학의 기초교수들에게서도 큰 반발이 일어났다.

갑론을박 끝에 관악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수원캠퍼스 농과대학에 있는 기초학교실들을 모두 관악 캠퍼스 내로 통합하기로 결정될 찰나에, 치과대학의 이종흔 교수가 발언권을 얻어 이왕에 통합하려면 관악캠퍼스에 생명과학대학을 만들어 통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안을 내니 찬성하는 교수가 많아졌다. 이때 캠퍼스 통합을 주도하던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이모 교수가 발언권을 얻어 중요한 사안이니 충분히 논의하여 추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하자 사회자가 이 안을 받아들여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고 하고 산회하였다. (이상의 사항은 그 당시 치과대학 교무학장보이셨던 이종흔 교수의 제고이다)

그 후로 이 논의는 유야무야(有耶無耶)되어 의안이 소멸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치과대학의 기초학 교실들이 잘못하면 의과대학의 기초학 교실에 흡수 통합되게 되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 뿐 아니라 이웃나라 간에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힘이 센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힘뿐 아니라 자국의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패하였을 때 이웃나라의 침범을 받게 된다. 강자는 더욱 욕심이 나서 영토확장을 하려는 욕심에서 약자를 공격한다.

이러한 논리가 서울대학교에서도 일어났었다.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기가 곤란하여 여기 기술하지는 못하지만 치과대학과 같은 단일 직종의 학문 분야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하면서 더욱 내실을 기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1970대 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모든 계통에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대학사회에 있어서도 교수 재임명이라던가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도약을 추구하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대학교에 새로운 캠퍼스가 신축되고, 신축교사로의 이전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치과대학과 이웃하고 있는 의과대학에서 추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 때 양 대학에서 교수들 간에 혼돈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이제까지 자기 직(職)에만 충실히 해 오던 직장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제도적인 변화를 받게 되면서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혼돈을 야기시켰다.

기업의 인수·합병(企業引受合併, mergers and acquisitions), 구조조정, 흡수통합이라는 제도는 기업이나 생 산직에서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혁이지만 이 제도를 대학에 적용시켜 학과간의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렇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에서는 통용이 되나 대학의 학문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리였다. 기업에서는 사업이 확장되고 그 수요에 따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나, 학문에 있어서는 다르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나 방법이 같다 할지라도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면 다른 학문이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만드는 결과물이 다르면 즉 목적하는 바가 다르면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다른 학문이다. 애초부터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학문의 퇴보를 가져올 뿐 발전적인 시도는 아니었다. 이런 혼란기를 겪은 세대로서 후진들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처칠 영국 수상이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즉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 말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있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에 도달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의 흡수통합논의는 우리와 같은 중소대학에서는 재발될 수 있어서 우리 후진 여러분께서는 위의 선학들이 경험한 예를 되풀이 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교신저자〉

- 임 창 윤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3-2(학동로 88-5) 진흥아파트 1동 1502호
- Tel : 010-8784-4226, E-mail : limcy545@hotmail.com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선거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 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3만원
3.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명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기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을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 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 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3,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 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²는, 김 등²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 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
Tel : 02-440-7515, Fax : 02-440-7549
e-mail : periokkl@khu.ac.kr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문	김정균	정책이사	권훈	이사	이준규
고문	박승오	편집이사	권훈	이사	조영식
고문	변영남	기획이사	김상환	이사	박영준
고문	김평일	연구이사	한승희	이사	박덕영
		국제이사	백장현	이사	유동기
명예회장	고이병태	법제이사	김현종	이사	박영범
명예회장	류인철	총무간사	유승훈	이사	박용덕
회장	김희진			이사	박정철
부회장	권긍록	자문위원	최상묵	이사	임용준
부회장	이해준	자문위원	김종열		
부회장	이주연	자문위원	한수부	대학이사	최성호
총무이사	김준혁	자문위원	차혜영	대학이사	강신의
재무이사	김정석	자문위원	허정규	대학이사	김병옥
대외이사	김성훈	자문위원	홍예표	대학이사	박병건
교육이사	유미현	자문위원	백대일	대학이사	최홍란
학술이사	허경석	자문위원	김명기	대학이사	이홍수
편집이사	신유석			대학이사	박호원
섭외이사	구기태	감사	배광식	대학이사	이재목
정보통신이사	김지환	감사	조영수	대학이사	박찬진
		감사	박준봉	대학이사	김성태
				대학이사	유승훈
				대학이사	김홍중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1년 제40권 제1호 통권 45호

Vol. 40, No. 1, 2021

발행인 : 김희진

Publisher : Kim, Hee Jin

편집이사 : 권훈

Editor-in-Chief : Kweon, Hoon

인쇄일 : 2021년 6월 25일

Printig date : June 25, 2021

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Publication date : June 30, 2021

발행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083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7길 2

2, Gurodong-ro 17-gil, Guro-gu, Seoul 08316

세브란스치과의원

Severance Dental Clinic

전화) 02-854-0028, 팩스) 02-854-0027

Tel : +82-2-854-0028, Fax : +82-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